

◆ 북미

- 美 자연재해평가社,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보험금 규모 10억 달러 예상
- 2007년도 美 소득보상보험: 최근 5년 내 가장 호조

◆ 유럽

- 영국의 비보험차량 운전자 수가 115만 명에 달해
- 벨기에 브뤼셀,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 포럼'을 개최

◆ 일본

- 외국계 투자펀드, 일본 손보사에 투자 확대 지속
- 도쿄해상, 일본 최고의 정보 공유 시스템 본격 제공

◆ 중국

- 중국 대지진, 지진보험제도 수립 계기로 작용하나
- 중국 지진피해, 분명 생명보험 보장범위에 속한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美 자연재해평가社,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보험금 규모 10억 달러 예상

- 미국 자연재해평가회사인 AIR(AIR Worldwide Corp.)는 5월 12일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인한 물적 손실의 보험금지급 규모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함.
- 한편, 쓰촨성의 청두시 전체 물적가치는 150억 달러를 상회하며, 쓰촨성 전체 지역은 대략 2,150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함.
- 또 다른 자연재해평가회사인 RMS(Risk management Solutions Inc.)는 지진으로 인해 물적 피해규모가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함.
- 지진발생으로 인한 물적 손실 중 단지 일부분만 보험에 의해 담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보험금지급 규모로 볼 때 이번의 쓰촨성 지진피해는 현재까지 가장 규모가 큰 보험금 발생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지진발생지역의 물적담보를 대상으로 한 보험담보 현황을 살펴보면
- 주택 등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보험담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무시할 만한 수준임.
- 쓰촨성 청두시 금융·상업지역에 대해서는 50%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험담보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됨.
- 다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에 의한 담보가 100% 형성된 것으로 파악됨.
- 하이테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시설 지역의 주요 관심사는 지진발생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중단의 억제인데, 이미 몇몇 기업은 업무의 차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향후 이러한 생산 차질은 해당 산업의 전체 공급물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됨.
- RMS사는 지진피해지역의 각 기업이 「영업중단 리스크」에 대비하여 경영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Business Insurance, 5/14)

□ 2007년도 美 소득보상보험: 최근 5년 내 가장 호조

- 美 생명보험마케팅센터인 LIMRA는 소득보상보험시장의 약95%를 차지하는 32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07년도의 실적을 발표함.

미국 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surance)은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단기와 장기로 구분됨. 보험금지급방법, 보험기간 설정 등 운영방법에 대한 계약자 의사 반영여부에 따라 self-insured 상품과 fully-insured 상품으로 구분됨. 또한 운영 및 관리만 민간보험사에 의뢰하는 상품으로 ASO(administrative service only)가 있음.

- 미국 소득보상보험은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함.
 - 2003년~2007년 기간 중 초회보험료는 2% 증가한 반면 2007년은 전년대비 7% 성장하여 28억 달러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하였고,
 - 2003년~2007년 기간 중 보유보험료는 5% 증간한 반면 2007년은 전년대비 7% 성장하여 166억 달러의 보유보험료를 기록함.
- 2006년과 마찬가지로 2007년도의 초회보험료 성장세는 장기소득보상보험(long term disability)의 성장에 크게 의존함.
 - 반면 단기소득보상보험(short term disability)은 ASO상품 판매의 저조로 답보상태에 그침.
-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Top 10보험사의 비중은 전년대비 2%p 성장하여 전체의 80%를 차지하였고, Top 5보험사는 전년과 비슷한 54%를 차지함.
 - 보유보험료기준으로 볼 때 Top 10보험사의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80%를 차지하였고 Top 5보험사는 전년대비 3%p 하락한 59%를 차지함.
- 그러나, 고용을 비롯한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08년도의 소득보상보험시장은 최근 5년 내에 가장 극심한 하락을 보여준 2004년도(초회보험료 기준 전년대비 -7% 성장)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
(LIMRA, 5/12)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영국의 비보험차량 운전자 수가 115만 명에 달해

- 세인즈버리즈 자동차보험회사(Sainsbury's Car Insurance)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 수가 1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함.
 -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미가입자의 주요 연령층은 17~24세로 나타났으며, 이들 응답자 가운데 2/5 이상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한다고 자백하였음.
 - 25~34세 그룹의 비보험운전자도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비보험차량 운전자가 1%로 그 뒤를 이었음.
-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런던지역이 영국 전체 비보험차량 운전자 가운데 6%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남서부와 웨일 지역이 5%, 요크셔와 훔버사이드가 4%, 스코틀랜드 3%, 북부지역이 2%, 남동부를 비롯한 동부지역의 미드랜드와 앤글리아, 서부 미드랜드지역이 각각 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 같은 보험 미가입 사유는 '보험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19%)',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19%)', '자동차보험을 재가입을 잊었다(13%)', '자동차보험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13%)' 등이었음.
- 자동차보험감독국에 따르면, 이런 비보험차량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매년 500백만 파운드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힘.

(Insurance Daily, 5/12)

□ 벨기에 브뤼셀,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 포럼’을 개최

- 프랑스에 본사를 둔 유럽보험위원회(CEA: The European Insurance and Reinsurance Federation)와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는 5월 13일 브뤼셀에서 개최될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포럼’에 앞서 공동문(joint-message)을 발표함.
- 이번 포럼에 참석한 모든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 보험시장의 재보험 관련 이슈를 비롯한 최근 발표된 금융서비스 규제에 대한 블루프린트(blueprint)*, 유럽지역의 솔벤시 II 지침 관련 내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전함.

* 규제개혁 블루프린트(blueprint) :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안을 지칭하며, 이는 미국의 신용정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되며,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규제금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풀이되고 있음.

- 또한, 이 같은 포럼은 양측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로드맵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금융시장규제대담 개최 및 미-유럽연합 정부기구가 주최하는 실질적인 회의가 올해 안에 개최되어야만 할 것이라 전함.
-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양측 시장의 규제범위 내에서 기회와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기구나 조직이 요구된다고 밝힘.
- 현재 CEA는 모든 종류의 보험 및 재보험을 보증하는 기구로 범유럽기업(pan-european company), 채권보증기관(monoline), 상호회사, SMEs 등의 형태인 33개의 정회원(member bodi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같은 기구는 유럽의 전체 수입보험료 중 약 94%에 달하는 것으로 약 5000개 이상의 상품을 인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ACLI는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353개의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Globalreinsurance, 5/12)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아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무진단 보험상품 판매 추진

- 일본에서 영업 중인 미국계 보험회사인 아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AFLAC)은 12일 건강상태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 특약 「AFLAC 종신 특약」을 6월 1일에 판매한다고 발표함.
- 보험가입 절차상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으며, 지병이 있는 사람도 간단한 고지 사항의 기재만으로 가입할 수 있음.
- 동 특약은 AFLAC이 작년 8월에 판매한 인수 기준 완화형의 의료보험 「야사시 EVER」에 담보할 수 있음.
- 종전에 지병이 있는 경우에서도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검사를 권유 당했던 적이 있는지」 등의 4가지 항목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이 가능함.
- 다만, 종전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교적 높음.
- 계약 가능 연령은 40세 ~ 80세에 보험금액이 100만 ~ 1000만엔(61세 이상은 800만엔까지)임.
- 평균 보험료는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00만엔의 계약에 가입할 경우 월 2142엔 정도임.
- 추가로 입원 급부금이 하루 5000엔의 특약에 가입할 경우 합계 6412엔임.

(FujiSankei Busines I 5/13)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 ‘라이프넷생명보험’ 영업 개시

- 인터넷에서 생명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라이프넷생명보험」이 5월 18일 영업을 개시함.
 - 라이프넷생명보험은 전진 니혼(日本)생명보험의 영국 런던법인 사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구치지메이 사장(60) 등이 중심이 되어 2006년부터 사업추진을 시작함.
-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사업비 절감이 가능함에 따라 종전의 보험상품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의 판매가 가능하게 됨.
 -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는 SBI AXA생명보험회사가 지난 4월에 영업을 시작한 이래 2번째임.
- 5월 18일부터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형 사망보험과 피보험자가 입원했을 때에 급부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의료보험의 2가지 상품임.
- 정기형 사망보험은 보험금이 500만엔에서 최고 1억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최고 70세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함.
 - 보험을 해약했을 때에 반환되는 해약환급금과 배당은 없는 순수보험장성 상품이며 불완전 판매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특약도 담보하지 않고 있음.
- 보험료는 30세 남성이 3000만엔의 10년 정기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3484엔이며, 40대 이상은 이보다 더 높게 설정되었음. 동 회사가 주요 타깃으로 하는 20대~30대의 경우 대형 생보사의 보험료와 비교하여 20%~30% 저렴함.
- 보험가입 절차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가능하지만, 본인 확인은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함.

(산케이신문 5/18)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대지진, 지진보험제도 수립 계기로 작용하나

- 중국 쓰촨성(四川省) 원촨현(汶川縣)에서 발생한 강도 7.8의 대지진으로 보험업계가 재난구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보감위는 보험업계에 중대사건 응급조치 1급에 상응하는 관리체계를 발동, 응급지휘부를 설치하여 보험업계의 재난구조 활동을 총지휘하고 있음.
 - 각급 보험회사는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고 1)재난신고 핫라인 개설, 2)지원인력 적시 도착, 3)원스톱 지급시스템 확립 등으로 지진 피해자들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세기에만 세계적으로 발생한 54건의 대형 자연재해 중 8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최근 10년을 기준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해 중국이 입은 연평균 피해규모는 재산피해 1,000억 위안, 이재민 2억 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진위험국’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세기 전세계에서 발생한 진도 7.0 이상의 지진 중 35%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지진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120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59만 명이 중국인으로 조사됨.
- 최근 원촨지역 지진이 수 개월 전에 발발한 대형설해로 이미 중국 보험업계에서는 대형재난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금번 지진으로 이제 중국 보험업계는 국제경험을 도입하여 중국 국내 실정에 맞는 대형재해보험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전함.

(재경시보, 5/15)

□ 중국 지진피해, 분명 생명보험 보장범위에 속한다

- 지난 5월 12일, 쓰촨성(四川省) 원촨현(汶川縣)을 비롯한 인근지역은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가 너무 커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함.
- 또 중국 보감위와 생명보험 회사의 민원창구에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걸려온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음.
- 이에 대해 중국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중국생명(中國人壽)은 공식 발표를 통해, "지진피해는 명백히 생명보험회사의 보장범위에 포함된다"고 전했으며, 만약 보험가입자가 지진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임.
- 중국생명은 "현시점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의료/경제 지원이다."며 피해지역의 의료지원을 위해 1천만 위안 상당의 의료지원에 나서는 한편, 상하이시 교통국, 여행사 등과 협력하여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보험금 지급 대상자를 파악하여 즉각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했음.
- 한편, 중국생명 이외에도 중국보험그룹, 타이핑양보험(太平洋保險), 양광보험(陽光保險) 등 생손보사는 고객 핫라인을 개설하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 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금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배상이 가능한 보험상품은 신체의외상해종합보험, 의료보험, 학교의외상해보험, 의외상해의료보험, 생존/사망 혼합보험 등임.

(신문만보 , 5/16)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5.09(금)	08.5.16(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22	5.31	0.09
	美 10년국채	4.03	3.77	4.57	0.80
	英 10년국채	4.51	4.57	4.81	0.24
	日 10년국채	1.51	1.56	1.70	0.14
주가	韓 KOSPI	1,897.13	1,823.70	1888.88	3.57%
	韓 KOSDAQ	704.23	653.29	652.56	-0.11%
	美 DJIA	13,264.82	12,745.88	12986.80	1.89%
	美 Nasdaq	2,652.28	2,445.52	2528.85	3.41%
	英 FTSE100	6,456.90	6,204.70	6304.30	1.61%
	獨 DAX30	8,067.32	7,003.17	7156.55	2.19%
	佛 CAC40	5,614.08	4,960.56	5078.04	2.37%
	日 Nikkei225	15,307.78	13,655.34	14219.48	4.13%
	中 상해종합	5,261.56	3,613.49	3624.23	0.30%
	대만 가권	8,506.28	8,792.39	9217.42	4.83%
환율	홍콩 항셱	27,812.65	25,063.17	25618.86	2.22%
	원/달러	938.2	1,044.60	1049.40	4.80
	원/100엔	833.33	1,004.38	1000.86	-3.52
	엔/달러	112.58	103.34	104.85	1.51
	달러/유로	1.4722	1.5424	1.5437	0.0013
	위안/달러	7.3041	7.0048	6.9946	-0.0102